

#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의 신격에 관한 연구

魯成煥\*

(e-mail : nosh1@hanmail.net)

---

## 目次

---

1. 머리말
  2. 천일창과 연오랑 그리고 쓰누가아라시토
  3. 신물을 통하여 본 그의 성격
  4. 후예들을 통하여 본 그의 성격
  5. 마무리.
- 

## 1. 머리말

고대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신라에서 일본에 건너가 신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일본측 고문헌에는 가장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아메노히보코이다. 그는 신라의 왕자로 일본으로 건너가 타지마에 정착하여 지역의 신이 된 사람이다. 일본에서는 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신의 성격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아메노히보코는 어떠한 성격의 신일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대개 세 가지 관점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역사학적 관점으로서 그를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세력으로 보는 해석이다. 가령 역사학자 이병도는 그를 일본을 정복해나간 한반도세력으로 보았고,<sup>1)</sup> 북한의 김석형도 신라의 유력한 호족이 자기 세력을 거느리고 일본에 진출한 세력이라고 했다.<sup>2)</sup> 일문학자 손대준은 그 세력은 신공과 신무와 비견할

---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비교신화학, 비교민속학 전공

1) 이병도(1955) 『국사대관』, 普文社, p69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배집단으로 보았으며,<sup>3)</sup> 국문학자 황폐강은 국토개발의 신라계 祖神으로 보는 해석<sup>4)</sup>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처럼 아메노히보코를 한반도에서 진출하여 그곳을 개발하여 정착하는 이주계 세력을 보는 관점이다.

그에 비해 둘째는 민속학적인 관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적인 면을 보는 관점이다. 가령 민속학자 임동권은 그를 신물을 소유하며, 구사할 수 있는 인물. 즉, 권력자이며, 주구신보를 가진 사제자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관점은 남석환에 의해서도 행하여졌는데, 그는 그들에게는 주술적인 도구를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종의 종의적 집단이라고 본 것이 바로 그 예이다.<sup>6)</sup> 즉, 이들은 그를 무격(巫覡)의 신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아메노히보코를 『삼국유사』에 기록된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야기에 나오는 연오랑과 같은 인물로 보는 관점이다. 가령 인류학자 김택규는 아메노히보코의 이주전설은 연오랑과 세오녀의 도일전설을 연상시킨다고 하며<sup>7)</sup> 직접적인 연결을 짓지는 않고 가능성만 열어놓았지만, 국문학자 장덕순은 아메노히보코의 부인이 태양을 상징함은 그녀의 출생설화가 그녀를 일광의 감정으로 인하여 잉태한 적옥에서 태어난 것으로 서술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태양을 상징하는 연오랑 전설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오랑과 천일창의 설화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이야기로 보기 힘들며, 결국 하나의 태양의 여신설화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했다.<sup>8)</sup> 이에 비해 민속학자 임동권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즉, 부부가 도일하고, 또 그들 자신들이 태양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깊다는 점들을 들어 아메노히보코와 연오랑 그리고 쓰누가아라시토는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다시 말하여 그는 아메노히보코가 연오랑인 동시에 쓰누가아라시토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메노히보코는 신라에서 건너간 연오랑이며, 종교제의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은

2) 김석형(1988) 『북한연구자료선(2) 고대 한일 관계사』, 한마당. p168

3) 손대준(1983) 「천일창 전승에 관한 연구」 『원광대 논문집(17)』, 원광대. p112

4) 황폐강(1996) 「신화에 나타난 한일교류」 『일본신화의 연구』, 지식산업사. pp70-71

5) 任東權(1996) 「天日槍 -その身分と神宝について-」 『比較民俗研究(14)』, 筑波大学比較民俗研究会. p72

6) 南碩煥(1999) 「天之日槍と息長氏」 『문화사학(11)(12)(13)』, 문화사학회. p1049

7) 김택규(1986) 「동해문화권탐방기 -일본열도 동해연안의 신화와 제의의 현장 -」 『신라문화계 학술발표논문집(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p316

8) 장덕순(1987) 「설화에 나타난 대일감정」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p170

9) 임동권, 앞의 논문 p73

두 가지 의문을 풀게 된다. 하나는 과연 그는 연오랑인 동시에 쓰누가아라시토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연오랑과 아메노히보코는 신라에서 건너갔다는 점에서 서로 같으나 묘사되어있는 신분도 다르며, 또 이주경로도 다르다. 그 뿐만 아니라 쓰누가아라시토는 기록에 의하면 대가야국 왕자로 묘사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세 사람이 같은 인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를 종교제의를 표징으로서 무속집단이라고 파악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종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종교관은 다신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실로 각종 다양한 성격의 신들이 각자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일본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메노히보코는 그와 같은 구체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그 성격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메노히보코가 과연 신라의 연오랑 그리고 대가야국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와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승들을 서로 비교하여보고, 또 그가 어떤 성격의 신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전승과 후손들에 관한 기록에 대해 재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

## 2. 천일창과 연오랑 그리고 쓰누가아라시토

그럼 아메노히보코는 과연 연오랑이며 대가야국 왕자 쓰누가아라시토와 같은 인물인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그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많다. 그들은 모두 지배자급에 속하는 고급의 신분의 사람이며, 또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갈 뿐만 아니라 태양신앙과도 관계가 깊은 것 등으로 보아 그들 3명에게는 분명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시점의 해석이다.

먼저 아메노히보코와 연오랑의 경우, 두 설화를 대비하여 보면 내용상의 차이가 보인다. 첫째는 부부의 도일동기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학대에 못이겨 도망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후자는 남편이 바다에 나가 해초를 뜯고 있자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 그를 태우고 일본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일순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아내를 쫓아 일본으로 간 것으로 되지만, 후자는 그와 반대로 남편을 쫓아 일본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셋째는 전자의 경우 일본에서 부부가 재회를 못하지만, 후자는 일본에서 재회를 하여 같이 살아가

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메노히보코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첫 상륙지는 규슈 북부 이도지역이었다. 그에 비해 연오랑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아마도 규슈가 아닌 우리의 동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일본해의 연안일 가능성이 높다. 연오랑이 살았던 동해의 영일만은 지리적으로도 규슈보다도 일본해 연안이 더 가깝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많은 표류민들의 예에서 보듯이 연오랑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면 일본해 연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규슈보다 훨씬 높다.

이와같이 두 설화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을 같은 동일 인물로 보기가 힘들다. 아마도 아메노히보코 전승의 본래 모습은 남신이 홀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아메노히보코와 쓰누가아라시토는 동일인인가? 역사학자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았다. 그 이유를 그는 기록물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닮았다는 데서 찾았다. 닮은 부분이 다섯 군데에서 보이는데, 그 예를 들면 하나, 양자 모두 배를 타고 갔다는 것, 둘은 이주지를 들고 있다는 것, 셋은 일본조정으로부터 출신지를 물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고 묻는 물음이 동일한 문장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이며, 넷은 양자 모두 왕자라는 것이며, 다섯은 도일이유에 대한 서술도 같이 “일본국에 성황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귀화를 했다(聞日本国有聖皇, (以)帰化之)”라는 동일한 문장으로 서술되어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이들에 관해 서술할 때 같은 문장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군다나 이들의 신분이 왕자라고 해도 그들의 나라에 대해 각기 다르게 서술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물로 취급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노우에의 해석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노우에의 지적과는 달리 차이점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일찍부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쓰모토 시게히코(松本重彦)의 연구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두 전승은 다음과 같이 8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전자는 소를 끌고 음식을 나르는 천부가 적옥을 갖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메노히코에게 바치는데 대해 후자는 소를 끌고 가다가 빼앗긴 소의 대가로 백석을 얻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전자는 소를 끄는 자가 소를 죽이려한다고 의심받으나 후자는 소를 끄는 자가 소를 남에게 빼앗기고 먹혀버린다는 점이고, 셋째는 전자는 적옥의 화한 소녀가 왕자의 처가 되어 꾸중을 듣고 달아났다고 하였으나, 후자는 백석이 화한 여인이 쓰누가아라시토와 결혼하기 앞서 도망친다는 점이며, 넷째는 전자는 왕자가 쫓아와 나니

10) 井上秀雄(1979) 「日本書紀の新羅伝説記事」 『日本書紀研究(4)』, 搞書房, p238

와에 들어가려다 토착신들에게 저지를 당하나, 후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며, 다섯째는 전자는 아카루히메란 신이라 하였으나, 후자는 그 이름이 없다는 점이며, 여섯째, 전자는 히메코소 여신은 나니와에서 옮겨진 것으로 말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잡혀 다시 달아난 것으로 된 것처럼 보이나, 후자는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며, 일곱째, 전자는 아메노히보코가 타지마에 도착하였으나 후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점이며, 여덟째, 전자는 붉은 비단으로 인하여 대가야와 신라가 서로 적대시되는 이야기로 되어있으나, 후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sup>11)</sup> 이처럼 면밀히 비교검토하면 이 두 전승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차이는 그 뿐만 아니다. 그들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출신국도 다르다. 그리고 이동경로도 다르다. 즉, 전자는 규슈북부에 도착하여 훗날 세도내해를 거쳐 하리마를 통해 타지마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후자는 오늘날 야마구치현의 아나도에 도착하여 시마우라와 이즈모를 거쳐 쓰루가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있다. 즉, 전자는 일본에 도착하여 남쪽 루트를 택하였다면, 후자는 북쪽 루트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아내 정착행로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자는 세도내해를 통하여 나니와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후자는 그와 정반대로 나니와에서 세도내해를 통해 구니사키로 간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sup>12)</sup>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성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즉, 아라시토는 역사적인 인물의 성격이 강하다면 아메노히보코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신의 성격이 강하다. 아라시토는 일명 우시키아리시치칸키(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는 긴 이름을 갖기도 하지만, 이 이름은 일본어가 아닌 다분히 한국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병도에 의하면 아라는 신라의 알지, 알천, 백제의 아리수와 같은 말과 통하는 말로 거사(渠師), 즉, 귀인을 뜻하며, 칸키는 수장을 나타내는 말로 보고, 아리시칸키라는 이름은 필경 가락국의 귀인을 의미하는 말이라 했다.<sup>13)</sup> 이처럼 그의 이름은 실제 사용하는 고대한국어가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의 「계체기」에도 가락국왕 아리시토(阿里斯等)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름은 가야의 왕족을 나타내는 호칭일 가능성이 높다.<sup>14)</sup>

11) 松本重彦(1989) 「太古における韓土關係の伝説」, 소재영, 「연오랑 세오녀 설화」 『한국설화문학연구』, 송실대학교 출판부. p92에서 재인용.

12) 노성환(2008) 「대가야국왕자 쓰누가아라시토 전승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38)』, 대한일어일문학회. p182

13) 이병도, 앞의 책 p70

14) 松前健(1990) 「記紀のヒメコソ縁起の成立」 『研究紀要(27)』, 大阪成蹊女子短期大学. p58

그러나 아메노히보코는 이름부터 일본적이다. ‘아메’는 하늘과 바다를 의미하는 일본어이며, ‘히’도 태양을 의미하는 일본어이며, ‘보코’도 창을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이처럼 그는 한국에서 건너간 인물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순수 일본어이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물 또한 한국의 신물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며, 그가 지나간 곳마다 신사가 세워질 정도로 그는 역사적 인물이라기 보다는 신 또는 신앙의 상징물에 가깝다. 이처럼 쓰누가아라시토와 아메노히보코는 동일한 인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메노히보코는 신라의 연오랑이 아니며, 또한 대가야국 왕자 쓰누가아라시토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3. 신물을 통하여 본 그의 성격

이번에는 아메노히보코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자. 이에 관심을 가진 김택규는 아메노히보코라는 명칭은 후세에 일본식 이름으로 윤색된 흔적을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재한 개인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신라 지역에서 건너간 호족들이 당시의 일본으로서의 놀라운 무기, 보물, 신기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을 나타내는 신라계 이주민 문화의 리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sup>15)</sup>

그에 비해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 주목을 끄는 해석은 역사학자 나오키 코지로(直木孝次郎)와 문학자 이토 하지메(伊藤肇) 그리고 후쿠시마 아키오(福島秋穂)의 연구이다. 나오키는 아메노히보코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수한 일본어로 실제 사용한 신라왕자의 이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sup>16)</sup> 그의 이름이 하늘(天)과 태양(日)이 수식되어있는 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북방 아시아적인 천적종의(天的宗儀)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신앙물로 해석했다.<sup>17)</sup> 다시 말하자면 그는 아메노히보코를 제의로 사용하는 제기가 신의 이름이 되었다고 본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토는 아주 단순하게 그의 이름이 금속으로 만든 창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도검문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해석을 했다.<sup>18)</sup>

15) 김택규(1993) 「古代 羅日文化比較를 위한 몇 가지 視角」 『한일문화비교론 -닭은 뿌리 다른 문화』, 문덕사. p41

16) 直木孝次郎(1988) 「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 『古代日本と朝鮮, 中国』, 講談社. p21

17) 直木孝次郎(1994) 「播磨の中の朝鮮文化」 『歴史読本臨時増刊-渡来人は何をもたらしたか-』, 新人物往来社. p217

18) 伊藤肇(1980) 「ヒメコ伝説の一考察」 『古代の文学と民俗』 <慶応義塾大学国文学研究会

그런 한편 후쿠시마는 아메노히보코를 창으로 보았을 때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창이 이자나기, 아자나미의 두신이 최초의 땅인 오노고로시마를 만들 때 창으로 바닷물을 휘저어 만드는데 그 때 사용한 창이 아메노누보코(天沼矛, 天瓊矛)이며, 또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바위동굴에 숨어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깔렸을 때 그녀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위하여 아메노우즈메가 거의 옷을 벗은 모습으로 야한 춤을 출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창이었는데, 그 창이 히보코(日矛)라는 창인데, 이러한 창들은 남녀 성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름을 「태양신의 남근인 태양광선에 의해 태어난 아이」라고 해석했다.<sup>19)</sup>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아메노히보코를 태양의 아들로 보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그의 이름만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그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의 성격을 전부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름을 통한 그의 성격파악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논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고사기』와 『일본서기』(이하는 <기기>로 약함)에서는 그의 성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한국에서 가지고 갔다는 보물 즉, 신물이다. 그 신물들은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각기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물들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보다 어느 정도 아메노히보코의 성격도 아울러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 신물의 종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조금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각기 그 보물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사기

아메노히보코가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타마쓰다카라(玉津宝)라는 구슬이 두 줄이나 있었다. 또 나미후루히레(浪振比礼), 나미기루히레(浪切比礼), 가제후루히레(風振比礼), 가제기루히레(風切比礼), 오키쯔 카가미(奥津鏡), 헤쯔카가미(邊津鏡)라는 거울 두 개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을 합하면 8종이나 된다.

編>, 桜楓社. p116

19) 福島秋穂(1988) 「古事記に載録された天之日矛の話をめぐって」 『記紀神話伝説の研究』, 六興出版. pp463-469

## (2) 일본서기

- 1) 3년 춘 삼월, 신라왕자 히보코가 왔다. 가지고 온 것은 하후토타마(羽太玉), 아시타카타마(足高玉), 우카카(鶺鹿鹿)의 적석(赤石), 이즈시(出石)의 작은칼(小刀), 이즈시(出石)의 창, 히카가미(日鏡), 구마노히모로기(熊神籬) 모두 7점이다. 이것들을 타지마에 보관해두어 神寶로 했다.
- 2) (천황에게) 바친 것은 하호소타마(葉細珠), 아시타카타마(足高珠), 우카카의 적석주(赤石珠), 이즈시의 작은칼(刀子), 이즈시의 창(槍), 히카가미, 구마노히모로기, 이사사(胆狭淺)의 큰칼(太刀) 등 모두 합하여 8종류이다.
- 3) 88년 가을 7월 10일 군경에게 말하기를 “신라의 왕자 히보코가 처음으로 왔을 때 가지고 온 보물이 지금 타지마에 있다.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여 신보로 되어있다. 나는 지금 그 보물을 보고자 한다.” 고 했다. 그 날 사신을 보내어 히보코의 증손 키요히코에게 알렸다. 키요히코는 칙명을 받고, 스스로 신보를 바치며 헌상했다. 하후토타마 1개, 아시타카타마 1개, 우카카의 적석 1개, 이즈시의 창, 히카가미 1개, 구마노히모로기 1개이다. 다만 작은칼은 1개만 있는데, 이름을 이즈시라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고사기』는 타마쓰다카라(玉津宝)라는 구슬 두 줄, 나미후루히레, 나미기루히레, 가제후루히레, 가제기루히레 그리고 오키쓰카가미, 헤쓰카가미라는 거울 두 개 모두 합하여 8종이다. 이에 비해 『일본서기』의 수인조 3년에는 하후토타마, 아시타카타마, 우카카의 적석주(赤石珠), 이즈시의 작은 칼, 이즈시의 창, 히카가미, 구마노히모로기, 이사사의 큰칼 등 모두 7종류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서기』는 천황에게 바친 물건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3년 조의 일설에는 하호소타마, 아시타카타마, 우카카의 적석주, 이즈시의 작은칼, 이즈시의 창, 히카가미, 구마노히모로기, 이사사의 큰칼 등 8종류라 하였지만, 88년에는 하후토타마 1개, 아시타카타마 1개, 우카카의 적석 1개, 이즈시의 창, 히카가미 1개, 구마노히모로기 1개, 작은칼 1개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7종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기 기록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하나는 구슬류이다. 타마쓰다카라, 하후토타마, 아시타카타마, 우카카의 적석, 하호소노타마이다. 둘은 히레(比禮)이다. 여기에는 나미후루히레, 나미기루히레, 가제후루히레, 가제기루히레가 있다. 셋은 거울이다. 여기에는 오키쓰카가미, 헤쓰카가미, 히카가미가 있다. 넷은 무기류이다. 여기에는 이즈시의 작은칼, 이즈시의 창, 이사사의 큰칼이 있으며, 다섯은 이상의 4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마노히모로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물들에 대해 일문학자 이창수는 왕권의 상징물로 해석한 적이 있다. 즉, 구슬은 왕권의 정통성, 그리고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



면서, 그 밖의 도구들은 태양과 주술적인 기능을 가진 종교적인 도구라 하면서 이러한 물건들은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신성왕권의 상징물이라 해석하였던 것이다.<sup>20)</sup> 아메노히보코가 타지마의 호족으로서 군림하였고, 그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물들을 지배자가 가지는 권위의 상징물로 해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신물은 주로 중앙의 기록인 <기기>에 기록되어있다. 지역의 문헌인 『풍토기』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일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기>는 이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천황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문헌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물은 지방왕권의 상징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의 신물을 왕권의 상징이 아닌 다른 기능적으로 보면 어떠한 특징이 보여 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구슬류를 보면 타마쓰다카라, 하후토타마, 하호소타마, 아시타카타마, 우카카의 적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타마쓰다카라에 대해 『고사기』는 두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것은 실 또는 다른 것에 의해 꿰어진 상태에 있는 구슬이다. 그리하여 매우 좋고 가치 있는 구슬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보다 신령이 깃든 신성한 구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sup>21)</sup> 하후토타마는 하후토, 하후쓰, 하후루라는 의미로 힘차게 흔드는 구슬이라는 뜻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이를 두고 ‘새가 날개를 흔들 듯이 좌우로 소매를 올려 흔들면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슬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하호소노타마이다. ‘하’는 앞의 것과 같고, ‘호소’는 가늘다, 세세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앞의 것 후토와 반대되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슬들을 갖춘다는 것은 흔드는 구슬의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시타카타마는 그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것 같다. 일본문학대계의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것은 구슬의 모양에서 생겼든지, 아니면 굵이 높은 대에 올려진 구슬 혹은 지명에서 생겨난 이름인지도 모른다고 주석하고 있다.<sup>22)</sup> 이처럼 아시타카타마가 불분명하듯이 우카카의 적석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보면 최소한 그것은 물새와 신령스러운 돌이 결합된 붉은 색을 띠는 주술적인 돌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20) 이창수(2004) 「기기에 나타난 신보 연구 -아메노히보코의 장래물을 중심으로-」 『일본학보(58)』, 한국일본학회. pp340-341

21) 青木和夫外 3人(1984) 『日本思想大系(1) -古事記-』, 岩波書店. p434

22) 坂本太郎外 3人(1986)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p260

둘째 히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히레는 본시 길다랗게 생긴 천을 말하는데 그 이름들이 나미후루히레, 나미기루히레, 가제후루히레, 가제기루히레로 되어 있다. 이 물건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름이 ‘히레’이다. ‘히레’에 대해 김석형은 ‘지느러미’라고 해석하여 이는 이주민들이 타고 갔던 배들과 그것을 짓던 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sup>23)</sup> 즉, 그는 배에 장착된 돛과 노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히레’는 그것보다는 부인들이 정장을 할 때 어깨나 목에 두르는 길고 얇은 천 즉, 목수건(스카프)라고 여겨진다. 보통 일본에서는 이를 영건(領巾)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미후루히레의 나미는 파도, 후루는 흔든다는 의미이므로 이것은 파도를 일으키는 영건이다. 그에 비해 나미기루히레의 ‘기루’는 자르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나미후루와는 반대로 파도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영건이다. 한편 가제후루히레의 가제는 바람을 의미하므로 이는 바람을 일으키는 영건이며, 가제기루히레는 그와 반대로 바람을 재우는 영건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러한 천들은 모두 바다의 항해와 관련이 있다. 파도와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들은 항해안전에 절대 필요한 주술적인 도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거울이다. 이 거울들은 각기 오키쓰카가미, 헤쓰카가미, 히카가미라는 이름을 가졌다. 카가미가 거울이라는 뜻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이름만 보면 오키쓰의 ‘오키’는 바다를 의미하는 ‘충(沖)’, ‘영(瀛)’과 같은 뜻이며, 헤쓰의 ‘헤’는 해안을 의미하는 말이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쓰’는 조사 ‘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키쓰카가미는 바다의 거울이라는 뜻이며, 헤쓰카가미는 해안의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히카가미의 ‘히’는 말 그대로 태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 거울도 바다와 관련이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무기류이다. 여기에는 이즈시의 작은칼, 이즈시의 창, 이사사의 큰칼이 있는데, 미시나 쇼오에이(三品彰英)에 의하면 작은칼, 큰칼, 창 등은 모두 일신(日神)을 부를 때 사용하는 주술적인 도구라 하였으며,<sup>24)</sup> 임동권도 여기에 나오는 도검류는 양손에 칼을 쥐고 흔들며 춤을 추거나 던져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무구와 같은 것으로 일종의 주술적인 도구로 보았다.<sup>25)</sup>

다섯째는 구마노히모로기이다. 이 말 속에 나오는 ‘구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가령 말 그대로 동물 곰으로 보는 견해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차자(借字)로 보는 견해이다. 전자의 경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미시

23) 김석형(1988) 『북한연구자료선(2) 고대 한일 관계사』, 한마당. p184

24) 三品彰英(1980) 「ミタマフリの伝承」 『増補 日鮮神話伝説の研究 三品彰英論文集(4)』 平凡社. p134

25) 任東權, 앞의 논문 pp63-64

나 쇼에이의 연구를 들 수가 있는데, 그는 여기에 꿈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은 고구려의 주몽신화에 보이는 웅신연(熊神淵)과 같은 것으로 필시 꿈 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sup>26)</sup>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김석형의 연구들 들 수가 있는데, 그는 ‘구마’를 동물의 꿈이 아니라 신성하다는 의미로 보았다.<sup>27)</sup> 이러한 그의 해석은 신을 나타내는 일본어의 ‘가미’의 어원이 ‘꿈’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 같다. 이와같이 본다면 후자의 김석형의 해석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그 이유는 히모로기라는 말이 곧 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이다. 즉, 히모로기의 ‘히’는 신령, ‘모로’는 제사지내는 곳, ‘기’는 특정의 영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구마노히모로기란 신들이 내림하는 신성한 장소 및 그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곳을 무당의 당집 또는 신사, 신궁으로 보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보았을 때 그가 가지고 간 물건은 무구인 칼, 창, 거울을 비롯하여 적석, 일경, 히보코와 같이 태양신앙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히레와 오키쓰와 헤쓰라는 이름을 가진 거울과 같이 해양신앙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의 성격은 도검류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 태양을 숭상하는 향해 안전의 신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도일과 이주는 이러한 신앙집단이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일본의 많은 제의 가운데 거대한 창을 신체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어찌면 이러한 제의도구인 창은 한국에서 건너간 아메노히보코의 신앙과도 서로 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 4. 후예들을 통하여 본 그의 성격

고기록을 통하여 보면 아메노히보코는 타지마에 정착하여 많은 후손들을 남긴다. 그 중에서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도 수없이 많이 배출한다. 특히 <기기>에서는 아메노히보코의 계보와 함께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후손들에게서 보이는 가계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공통된 특징을 파악한다면 아메노히보코의 성격은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고사기』, 『일본서기』, 『풍토기』에 활약상을 기록해 놓은 인물을 꼽는다면 이도테(五十迹手)와 타지마모리(多遲磨毛理) 그리고 신공황후를 들 수가 있으며, 그리고 고대 호족이었던 미야케씨(三宅氏)들을 들

26) 三品彰英, 앞의 책 pp137-138

27) 김석형, 앞의 책 p184

수가 있을 것이다.

이도테는 『풍토기』에 나오는 인물로 규슈 북부 이도시마지역을 지배했던 지방호족이었다. 『축전국풍토기(筑前国風土記)』의 일문에 의하면 중애와 신공이 반란을 일으킨 쿠마소를 정벌하기 위해 규슈로 향했을 때 아나도(穴門)의 히키시마(引島)에 까지 나가 마중하여 바닷 길을 안내한 자이다.<sup>28)</sup>

타지마모리에 대해서는 『고사기』는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황은 타지마모리로 하여금 도쿄요노쿠니(常世国)로 보내서 항상 변함없이 빛나는 나무열매를 찾아오게 했다. 그리하여 타지마모리는 도쿄요노쿠니에 도착하여 그 나무열매를 따다가 카게야카게(纒八纒: 잎에 붙어있는 수 많은 밀감)와 호코야호코(予八予: 꼬챙이로 쥔 수 많은 밀감)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을 때 천황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카게요카게와 호코요호코(予西予)를 나누어 황후에게 바치고, 나머지 카게요카게와 호코요호코를 가지고 천황의 능 입구에다 바쳤다. 그때 그는 그 나무열매를 손에 쥐고 슬피 울면서 외치기를 "도쿄요노쿠니의 언제나 변함없이 빛나는 나무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죽었다. 그 변함없이 항상 빛나는 나무열매는 오늘날 감귤(橘)을 말한다.<sup>29)</sup>

여기에서 보듯이 타지마모리는 먼 바다를 항해하여 도쿄요노쿠니에 가서 감귤을 구해 일본에 전한 사람이다. 도쿄요노쿠니에 대해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는 중국 남부지역이라고 한 한편,<sup>30)</sup> 후쿠나가(福永光司)는 한국의 제주도라고 추정했다.<sup>31)</sup> 그러나 도쿄요노쿠니가 일본신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바다 저편에 있는 신화적인 공간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여하튼 타지마모리는 천황의 명을 받아 바다 저편 도쿄요노쿠니를 향해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여 감귤을 가지고 와서 죽은 천황의 묘지에 갖다 바치며 울다가 지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그의 일화는 천황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의 이야기는 1941년에 만들어 1944년까지 사용한 『초등국어독본』에 실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타지마모리는 일본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것이다.

또 한명의 후예인 신공황후는 일본의 기록에 삼한(한국)을 정벌한 여제로 유명하다. 특히 『고사기』에 의하면 아메노히보코의 이주전설을 기록한 다음

28) 吉野裕訳(1982) 『風土記』, 平凡社. pp335-336

29) 노성환 역주(1990) 『고사기(중)』, 예전사. pp131-132

30) 折口信夫(1975) 「姥が国 常世へ(異郷意識の起伏)」 『折口信夫全集(2)』, 中央公論社.

31) 福永光司(1996) 「常世と神仙」 『馬の文化と船の文化』, 人文書院. p313

그의 후예들을 소개하면서 아메노히보코의 후손 가운데 가쓰라기(葛城)의 다카누가히메(高額比売)가 있는데, 그녀가 바로 신공황후 즉, 오기나가타라시히메(息長帶比売)를 낳은 선조라고 소개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서 『고사기』에 있어서 아메노히보코의 계보의 서술의 목적이 마치 신공황후에 집중되어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녀는 <기기>에 의하면 반란을 일으킨 쿠마소를 정벌하기 위하여 남편인 중애와 규슈로 가 있었을 때 서쪽 땅을 정벌하라는 신탁이 내렸다. 그 때 그녀는 임신하여 만삭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가 신라왕의 항복을 받고서 돌아갔으며, 이내 곧 임신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그녀의 신라정벌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를 그대로 믿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일본의 신화전승에 나타난 그녀의 성격은 먼 바다를 건너 외국을 정벌하고 돌아온 영웅이었다.

그리고 <기기>에 기록된 아메노히보코의 후예 가운데 미야케씨가 있다. 그들이 아메노히보코의 후예임은 <기기>의 타지마모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나타난다. 즉, 『고사기』에서는 “미야케무라지(三宅連)들의 선조인 타지마모리”라고 했고, 『일본서기』에서는 “타지마모리는 미야메무라지의 선조이다.”고 했다. 이처럼 그들은 타지마모리의 후손들이었다. 미야케씨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데, 특히 아메노히보코의 후예로 일컬어지는 세츠(摂津)에 근거지를 둔 미야케씨에 대해 미시나 쇼오에이는 야마토 조정의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일을 가업으로서 전통을 가졌다고 했다.<sup>32)</sup> 재일사학자 고관민(高寬敏)도 미야케무라지는 천무 12년 이전은 미야케 기시(三宅吉士)이었으며, 이들은 나니와쓰(難波津)에서 해상교통을 관장하면서 야마토 정권의 외교관으로서 활약했다고 했다.<sup>33)</sup> 이러한 씨족들이었기 때문에 최원재는 해상교통에 관한 지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sup>34)</sup> 이처럼 고대의 기록물에 나타난 아메노히보코의 후예들만 보더라도 일본의 역사에 기라성같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그들은 바다의 항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도지역의 이도테는 바다를 항해하여 천황을 맞이했고,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혼슈에서 규슈로 오는 바닷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타지마모리도 먼 바다를 여행하여 감골을 구해

32) 三品彰英, 앞의 책 p132

33) 高寬敏(1997) 「アメリヒボコと難波のヒメコソ社神」 『古代の日本と渡来の文化』 <上田正昭編>, 学生社. p46

34) 崔元載(2004) 「天之日矛伝承の考察 - 渡来と土着を中心に -」 『일본어문학(24)』, 일본어 문학회. p337

왔다. 수인천황이 그에게 명하였던 것도 그가 저편 바다 건너 외국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의 자손인 신공황후에게서도 나타난다. 신공은 군사를 이끌고 먼 바다를 건너 외국을 정벌하였다는 것은 비록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녀가 해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인물들과 공통되는 것이다. 즉, 그녀를 바다와 연결시킨 것은 아메노히보코의 계보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며 활약했던 미야케씨들도 해상교통을 장악하고, 일본 조정의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처럼 아메노히보코의 후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다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아메노히보코가 바다를 상징하는 것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은 9세기의 문헌인 『고어습유(古語拾遺)』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아메노히보코를 바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해회창(海榭槍)」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에서 건너간 아메노히보코는 바다와 관련이 있는 신격이었음에 틀림없다.

## 5.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신라의 연오랑도 대가야국 왕자인 쓰누가아라시토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태양신앙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각기 다른 별개의 사람이었다. 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던 신물과 그를 선조로 삼고 있는 후예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신물에는 무구인 칼, 창, 거울을 비롯하여 적석, 일경, 히보코와 같이 태양신앙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있고, 히레와 오키쓰와 헤쓰라는 이름을 가진 거울과 같이 해양신앙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많았다. 이를 통하여 그의 성격을 본다면 그는 도검류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 태양을 숭상하는 항해 안전의 신이었다.

또 그의 후손들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을 꼽으면 이도테와 타지마모리 그리고 신공황후, 미야케씨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바다와 관련하여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도테는 신공과 중애의 바닷길을 안내했고, 타지마모리는 먼 바다여행을 하여 감귤을 가지고 왔으며, 신공은 바다를 건너 외국을 정벌하였다고 하며, 미야케씨 또한 해상교통을 장악하여 야마토정권의 외교담당을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도 아메노히보코는 바다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신격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신물와 후손들을 통해 본 아메노히보코의 성격은 신앙적으로는 도검류를 무구로서 갖추고 태양을 숭상하는 향해의 집단이었다. 이러한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길고 먼 바닷길을 건너 일본으로 이주한 아메노히보코로 상징되는 이주세력의 경험과 기억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김석형(1988) 『고대 한일 관계사』 <북한연구자료선(2)>, 한마당
- 김택규(1993) 「古代 羅日文化比較를 위한 몇 가지 視角」 『한일문화비교론 -답은 뿌리 다른 문화』, 문덕사
- 노성환 역주(1990) 『고사기(중)』, 예전사
- 노성환(2008) 「대가야국왕자 쓰누가아라시토 전승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38)』, 대한일어일문학회
- 소재영(1989) 『한국설화문학연구』 송실대학교 출판부
- 손대준(1983) 「천일창 전승에 관한 연구」 『원광대 논문집(17)』, 원광대
- 이병도(1955) 『국사대관』, 普文社
- 이창수(2004) 「기기에 나타난 신보 연구 -아메노히보코의 장래물을 중심으로-」 『일본학보(58)』, 한국일본학회
- 장덕순(1987) 「설화에 나타난 대일감정」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 崔元載(2004) 「天之日矛伝承の考察 - 渡来と土着を中心に -」 『일본어문학(24)』, 일본어문학회
- 황패강(1996) 『일본신화의 연구』, 지식산업사
- 青木和夫外 3人(1984) 『日本思想大系(1) -古事記-』, 岩波書店
- 井上秀雄(1979) 「日本書紀の新羅伝説記事」 『日本書紀研究(4)』, 搞書房
- 任東權(1996) 「天日槍 -その身分と神宝について-」 『比較民俗研究(14)』, 筑波大学 比較民俗研究会
- 折口信夫(1975) 「妣が国 常世へ(異郷意識の起伏)」 『折口信夫全集(2)』, 中央公論社
- 高寛敏(1997) 「アメノヒボコと難波のヒメコソ社神」 『古代の日本と渡来の文化』 <上田正昭編>, 学生社
- 直木孝次郎(1988) 『古代日本と朝鮮, 中国』, 講談社
- 直木孝次郎(1994) 「播磨の中の朝鮮文化」 『歴史読本 臨時増刊 -渡来人は何をもたらしたか-』, 新人物往来社
- 福島秋穂(1988) 『記紀神話伝説の研究』, 六興出版
- 福永光司(1996) 『「馬」の文化と「船」の文化』, 人文書院
- 松前健(1990) 「記紀のヒメコソ縁起の成立」 『研究紀要(27)』, 大阪成蹊女子短期大学
- 三品彰英(1980) 『増補 日鮮神話伝説の研究 三品彰英論文集(4)』, 平凡社
- 吉野裕訳(1982) 『風土記』, 平凡社



## 要 旨

天日槍は新羅の延鳥郎も大伽倻国の王子の都怒我阿羅斯等でもなかった。彼らには太陽信仰という共通点は持っているかも知れないが、それぞれ性格が違う別人であった。天日槍の性格を把握するために、彼が持っている神物と彼を祖先として祭っている末裔たちの特性を調べて見た。その結果、彼の神物には武具の刀, 矛, 鏡をはじめ赤石, 日鏡, 日矛のような太陽信仰と関連の深い物が多く、領巾と沖津と邊津という名前を持っている鏡のように海洋信仰と関係が深いものが殆んどであった。これを通じて彼の性格を見ると、彼は刀剣類を持っている太陽を崇尚する航海安全の神であった。

一方彼の子孫の中で歴史的な人物には、五十迹手と多遲磨毛理、そして神功皇后、三宅氏などが挙げられる。彼らの一つの共通点は、海と密接な関連を持って活躍していることである。例えば五十迹手は神功と仲哀の海路を案内し、多遲磨毛理は遠い海へ行って、柑橘を持って来た。そして神功も海を渡って外国を征伐し、また三宅氏も海上交通を掌握し、大和政権の外交担当を独占していたのである。こうしたことから天日槍は、海と深い関係を持つ神格には間違いはない。このように神物と子孫を通して見た天日槍の性格は、信仰的な要素が強く、刀剣類を持って、太陽を祀る航海の集団であると共に、航海の安全を守る神であった。

キーワード：天日槍、延鳥郎、都怒我阿羅斯等、神物、太陽信仰、航海安全神。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